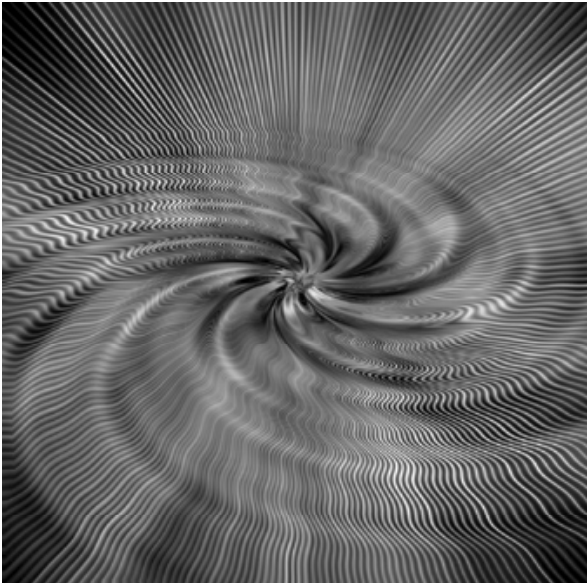


의식의 장(場)에 대한 자각 (1부) 세계의 영적 변형

| 호세 호베르 | 김현정 옮김 |

개인적 뇌의 영역을 넘어서는 의식의 장과 집합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서문

의식(Consciousness)과 자아초월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연구에 몰두하면 각자의 개인으로서 자아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나 개별적인 자아로서 자기 변형을 위한 기법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 사회를 변형시킬 이론과 기법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은 등한시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 자아초월적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나는 자아초월 과학을 이용해서 개인적 변형과 사회적 변형을 연결시킬 방법을 탐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과학이란 무릇 사회의 영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은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듯하다. 내가 보기에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에너지, 환경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차원적인 방식을 강구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¹⁾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면 아마도 의식을 변형시켜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한다는 과제일 것이다. 이 의식의 변형은 인류가 앞으로 시급한 도전들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의 이론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의식의 장”을 분석, 탐구할 것이다. 먼저,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물리학과

1) 에르빈 라즐로(Ervin Laszlo)는 자신의 책(2003, p. 26)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70개국 1670명의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통해 천명하기를, 인류에게 닥칠 거대한 재앙을 피하고 삶의 터전인 지구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구를 관리하는 일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노벨 수상자 백두 명을 비롯한 우리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행동을 주저하고 있는 세계 지도자와 각국 정부, 국민들이 지구 공동체적 윤리에 입각하여 시급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초심리학과 자아초월 심리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의식의 장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 그 의식의 장과 사회적 변형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것이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의식의 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나는 개인의 변형과 영적 각성이 지구적 변형을 돕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달리 말해서 집단적 무의식을 고려해 볼 때 한 개인이 개인적 변형을 통해 내적으로 성취한 바는 나머지 인류 또한 같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 변형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인류 전체에 미치는 무의식적 영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에 있다.

핵심 단어 : 초심리학, 확장된 마음, 뇌를 넘어서, 집단적 의식, 집단 무의식, 의식의 장, 열린 마음, 각성, 의식의 변형

과학적 구조

첫째, 의식의 장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두뇌와 두개골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은 뇌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주류의 신경과학 및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학, 의학과 모순된다. 그 결과, 의식이 뇌의 영역을 넘어서 확장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는 일은 현실의 과학적, 관습적 그림들과도 모순될 것이므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Kuhn, T., 1970)²⁾.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의식에 대한 신경생리학의

2) 의식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논의한 자료를 읽어보고 싶다면 Lancaster B.L., 2004를 참조하십시오.

연구결과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두뇌와 의식의 신경 연관성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Dehaene, et al., 2006; Lamme, 2006; Dehaene, & Naccache, 2001; Delacour, 1997). 따라서 “두뇌의 기능이 의식과 연관 있음을 관찰했다고 해서 두뇌가 의식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Laszlo, E., 2004b, p. 108) 결국 라베지(LaBerge)와 카세비치(Kasevich)가 말한 바와 같이, 의식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두뇌 활동이라는 것은 여전히 과학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2007, p. 1). 왜냐하면, 내 의견으로는, 뇌와 의식은 뇌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상향식 관계가 아니라 의식³⁾에서 뇌가 창조되고, 의식이 뇌와 상호작용하는 하향식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 도구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의식과 두뇌 사이의 상호 활동방식뿐이다.

둘째, 의식을 뇌의 활동이라고 축소시켜서 말하는 전제는 물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며 결정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것은 “분리라는 존재론적 가정과 모든 지식이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자료에 기반한다는 인식론적 가정을 토대로 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Harman W., 1994, p. 378).” 의식은 두뇌를 넘어선 것이므로 의식의 장이라는 개념을 납득시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하만(Harman)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에게서 “분리 과학(Separateness Science)”이 아니라 만물의 상호연관성, 단일성, 일체성(oneness)에 기반을 둔 “전체 과학(Wholeness Science)”이 필요하다. 또 두 개의 ‘창문’, 즉 육체적 감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는 창문과 직관적·감각적 능력으로 인식하는 주체라는

3) 내가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한적인 “자아-의식(ego-consciousness)”이 아니라 “영혼-의식(soul-consciousness)”을 가리킨다.

창문으로 실재를 보는 인식론적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ibid., p. 379-378).

셋째, 물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며 결정론적인 과학 세계관으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으며 나아가 우주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세계관은 문명과 지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Bohm, 1980, pp. 2-3). 아쇼크 강가딘(Ashok K. Gangadean)은 “이기적인 마음이 분열과 불협화음과 이원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병적 이상을 초래하는 자기 소외의 원인이 된다.”(2006, p. 387)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받은 파괴적 영향으로는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전쟁, 종족학살, 생태계 파괴, 난무하는 폭력과 공포, 종교 및 정치에 열광하기, 지구오염, 극심한 빈부 격차, 생물다양성 감소, 식물과 동물과 인간과 생물권에 대한 존중 결여(Barney, G., 1982; Laszlo, E., 2003; Prentice, 2003)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방식을 변형시키고 지구 위에서의 삶이 더욱 조화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삶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Gangadean, 2006, p. 382). 하만이 말한 “전체과학”은 모든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뒷받침할 세계관을 길러줄 것이다(ibid., p. 391).

마지막으로 지난 수십 년간 양자물리학과 초심리학과 초월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의식이 두뇌를 넘어서 확장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증거는 “의식의 장”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며, 그러한 증거에 힘입어 가까운 미래에 과학계와 사회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본다. 라즐로(Ervin Laszlo, 2004b)에 따르면, 자아초월적 각성으로 특성화된 사회는 물질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면이 덜하고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는 관계를 맺으며 동물이나 식물을 더 친절하게 대한다.

뇌의 영역을 넘어선 의식

(기계론적-뉴턴식-결정론적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은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훌륭한 과학자란 연구 대상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과학자의 마음과 의식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하나는 과학자의 개인적 무의식이 연구작업에 투사되기 때문에 과학자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Harman, 1993b, p.139)⁴). 다른 하나는 양자물리학, 전체론적 과학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면 마음과 의식은 물리적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의 기본 구조를 이루므로, 과학자는 관찰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세계’에 있는 활동적인 참여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찰자의 행동방식은 관찰자가 속한 물리적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관찰이 이루어질 때에만 양자물리학의 확률함수가 붕괴되어 현실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가 나온 때는 1801년으로 거슬

4) 내 의견으로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의식(및 현실)에 대한 이론은 대개 과학자 자신들이 대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과학자들의 지적 작업에는 그들의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과학자의 이론과 모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rman, 1993b, p.139). 깊은 차원에서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 (책 또는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쏟기란 어려운 일이다.

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의사인 토마스 영(Thomas Young)은 광자나 전자에 파동적 특성이 있음을 입증한 그 유명한 “이중 슬릿(double slit)” 실험을 한다(Davies P.D. & Brown, J.R., 1986, p. 7). 그 실험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의식(관찰자)이 실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양자 측정의 문제라고 한다. 관찰하기 전에는 스크린에 광자가 기록될지 미립자가 기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⁵⁾ 즉 의식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관찰이라는 행위에 앞서, 물질의 미량원소들과 그것들의 특징은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파동 혹은 입자로 설명될 수 없다. 단지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설명 가능하다. 그것들은 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 존재한다고 설명될 수 없다. 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 존재할 가능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입자의 잠재적 상태를 수학적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 파동 함수(wave function)이며, 누군가 관찰을 했을 때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고 한다.”(Lancaster, B.L., 2004, pp. 116-117)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관찰자가 스크린을 보고 입자를 확인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될 것이다.

양자물리학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는 물리적 실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1935년 논문에서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Podolsky), 로젠(Rosen)은 EPR 실험을 제안했다.⁶⁾ 아이슈

5) 짧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 더욱 명확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여기로 가면 된다.
<http://whatthebleep.com/trailer/DSDUQT.mov>

6) 이 실험에서는 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다른 입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타인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비국소성(non-locality property), 즉 분리된 두 입자 사이에는 거리에 관계 없이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런 특성은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즉각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Radin, D., 2006, p. 14). 이런 특성을 두고 아인슈타인은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작용(spooky action at a distance)’이라 말했고, 양자이론의 설립자 가운데 하나인 슈뢰딩거(Erwin Schrödinger)는 얽힘(entanglement)이라 했다. 사실 2004년판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지에 게재된 얽힘 연구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마이클 브룩스(Michael Brooks)는, 물리학자들이 미립자들 사이의 얽힘 현상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이 현상이 놀랍게도 우리가 거주하는 더 넓은 ‘거시’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최근 발견했다고 썼다(Radin, D., 2006, p. 14).”

위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객관적” 세계는 생각만큼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식은 단순히 “신경세포 및 그것과 관련된 분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합의 작용(Crick, F., 1994, p. 3)”을 넘어서는 보다 큰 어떤 것이다. 따라

(그러나 이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관찰되는 동안 관찰 대상이 변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입자로 쪼개졌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입자는 동일한 속도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때 하나의 입자에서 다른 하나의 입자까지의 거리 및 입자의 이동 속도가 과학자들이 측정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1982년 프랑스에서 알랭 아스펙트(Alain Aspect)와 그의 동료들이 이를 실험했었고, 1998년에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기신(Nicholas Gisin)이 그 실험을 재현했다. 이 실험에서 기신은 광자의 비국소성 얽힘 현상을 광섬유로 11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시연하였다. 2004년에는 5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재현했다.

서 우리는 의식이란, 뇌와 두개골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해 있으며 ‘저 밖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저 밖의 외부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

이 전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자면 1930년대 라인(J. B. Rhine)이 듀크 대학에서 초심리학에 관한 선구적 실험과 연구를 시작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⁷⁾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이 현상(ψ phenomena: 초감각적 지각(ESP)과 염력(psychokinesis)으로 나타나는 심령현상을 통칭-웁킨이)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정부기관⁸⁾의 보조를 받아 러셀 타그(Russell Targ)와 헤롤드 푸토프(Harold Puthoff)가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원격투시⁹⁾와 정보 전송과 텔레파시 실험을 했다(Targ, R. & Puthoff, H., 1974; Puthoff, H., & Targ, R., 1976; Targ, R. & Harary, K., 1984; Targ, R., Puthoff, H. E., 1996)¹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연구에 투

7) 딘 라딘이 광범위하게 상술한 바와 같이 초심리학의 기원은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06, p. 52-80).

8) 딘 라딘이 자신의 책(1997)에서 언급하듯, “많은 미정부 기관들이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과학적 두뇌들을 영입받아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SRI)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 중앙정보부, 미국방부 정보국, 미육군, 미해군, 미국 항공 우주국과 같은 여러 기관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유수 방위 산업체인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SAIC)이라 불리는 두뇌집단으로 이양되었다.

9) “원격투시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투시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주의 비국소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인 이 방법은 관찰자가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Lee, J.H., 2007, p.1)

10) 전(前) 프린스턴 대학교 공학과 학장인 로버트 잔Robert Jahn과 심리학자 브렌다 둔Brenda Dune은 2003년 보고서에서 25년간의 원격투시(그들은 원격 지각remote perception이라 했다) 연구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Dunne, D.J.

자할 정도라면 원격 투시란 초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한낱 놀이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혹자는 생각할 것이다. 라딘(D. Radin)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비롯해서 극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과학자들은 이 고도의 심령 현상의 실재를 직접 접하고 과학자로서는 절망스러우리만치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의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미 육군의 지원 아래 원격 투시자들이 비밀팀을 꾸려 수백 건의 원격투시 임무를 수행하였고 미국방부 정보국(DIA), 미국 중앙정보부(CIA), 관세청(Customs Service), 미국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미국 연방수사국(FBI), 정부의 첩보기관(Secret Service)이 모두 10년 이상 원격투시 팀에 의존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기도 했으나, 우리 과학자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함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 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이(psi) 현상 연구의 역사는 마침내 수면으로 부상했다.”(1997, p. 193)

라즐로는 <우주의 연결성Cosmic Connectivity>(2004a)이라는 글에서 사이(psi) 현상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소개하여 의식의 비국소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일레로 수면 중 이미지 수신에 대한 퍼싱어(M.A. Persinger), 크립너(D., Krippner), 울만(M. Ullman/1970, 1989)

& Jahn, R.G. 2003).

의식의 장은 “자기장처럼 우리 주위에 분명히 존재한다.
확실한 값을 매기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주고
관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의 연구가 있다. 뉴욕 시 메이모니즈(Maimondes) 병원의 드림 연구소에서 스탠리 크리퍼와 그의 조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꿈 ESP 실험(dream ESP experiments)도 있으며, 멕시코 국립대학 야코보 그린버그-질버바움(Jacobo Grinberg-Zylverbaum, 1993)의 ‘초월적 접촉과 소통’에 대한 놀라운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집단의 뇌파 조화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들도 있다. “피험자의 의식이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 패턴들이 동기화되기 시작하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두뇌의 좌우반구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 최대 열두 명까지 참여한 집단 명상 실험들에서는 참가자 전원의 뇌파가 동기화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Olistiche, R., 1992, in Laszlo, 2004a, p. 23)

한편 다른 실험들에서는, 한 피험자가 명상에 잠기거나 감각적인 자극을 받거나 다른 피험자와 의도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면 다른 사람(특히 정서적 유대가 강하거나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경우)의 뇌에서 인식 가능하고 일관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Benor, 1993; Braud & Schlitz, 1983; Dossey, 1989, 1993; Honorton et. al, 1990; Rosenthal, 1978; Varvoglis, 1986). 딘 라딘이 ‘두뇌 얽힘(entangled brains)’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은 뇌전도 연관성 실험에서 측정되었으며, 지난 40여 년 동안 독립적 그룹들에 의해 수십 번 재현되었다(2006, p. 18). 이러한 재현 실험들 가운데 라딘이 언급한 한 사례에서는 놀랍게도 “두 개의 뇌 사이에서 의미심장한 연관

성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이 현상과 관련된 정확한 뇌 부위(시각피질)까지 확인되었다.”(ibid., p. 136)^{1 1)}

또한 의식이 뇌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뇌를 넘어설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다른 종류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체이탈 체험(Monroe, R., 1971; Tart, C.T., 1998; Alvarado, C., 2000; Barus, I. 2003), 임사체험(Almeder, R., 1992; Fenwick, P., 1996; Bailey, L. & Yates, J., 1996; Ring, K. & Cooper, S., 1996; Lommel, P., et. al. 2001), 전생 체험 및 환생(Stevenson, I., 1987, 1997; Grof, S., 1998; Mills, A. & Lynn S., 2000), 사후 세계, 사자(死者)와의 의사소통, 영매술과 채널링 체험(Moddy, R., 1975; Almeder, R., 1992; Baruss, I., 2003), 텔레파시, 투시, 예지, 정신-물질 상호작용 또는 염력(psychokinesis, 정신을 집중하여 손을 대지 않고 물체를 움직이는 것-웁긴이)^{1 2)}, 기도, 원격 치유와 원격영향력, 의도의 힘,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Radin, D., 1997, 2006; Sheldrake, R., 2003; McTaggart, L., 2008) 등이 있다. 심령 현상이 모든 문화와 전 역사에 걸쳐서 연령과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Radin, D., 2006, p. 6).

이 모든 체험과 연구들 사이에서 나는 케네스 링과 샤론 쿠퍼가 했

1 1) 이 실험에서 배스티어 대학교의 리아나 스탠디쉬Leanna Standish와 그녀의 동료들은 기능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이용하여 한 쌍의 커플에게서 측정된 뇌전도 활동 간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발신자가 깜빡이는 불빛을 보는 동안 수신자의 시각피질에서 뇌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1 2) 정신-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소개하는 새 학술지(2004)로 「Mind and Matter(정신과 물질)」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던 입사와 유체이탈에 관한 놀라운 연구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연구 과정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체험 중에는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시각 장애인들이 앞을 ‘보는’ 방법은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각 작용이 아니라 심안(心眼)이라는 기이한 인식 방식을 통해서이다. 그들의 말로는 “초월적인 의식의 한 형태인 듯한 이 심안은 두뇌와 상관없이 기능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두뇌와 언어라는 매개체를 거쳐야 한다.”(ibid., p. 186)

그로프(Grof, 2000, p. 58-59)와 같이 자아초월 심리학 분야와 의식에 관한 현대 연구 분야에서는 다양한 자아초월 경험들이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같은 초월적 경험은 우리가 “개별적 존재와 대상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피부를 두른 에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뒷받침한다. 그로프가 설명하듯이, 의식은 식물과 광물과 동물의 영역, 인간 집단과도 동일시할 수 있고 전 인류를 아우를 만큼 확장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자아초월 개념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구 생물권 전체나 물질세계 전체로 경험할 수도 있다.

집합 의식

지금까지 의식이 두뇌와 두개골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해 있으므로 “의식의 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몇몇 배경을 요약했다. 그로프에 의하면, 인간 집단에 의식이 존재하고 나아가 인류 전체, 지구 생물권, 우주 전체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의식의 장”이라는 가설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 마하리시의 이론에 따르면,

“집합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이란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식의 총합 이상으로, 집단이 갖고 있는 전체 의식이다. 개인의 의식이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듯이, 사회의 집단적 의식은 사회적 삶의 활동을 관장한다. 그래서 집단적 의식의 수준은 가정, 지역사회, 시, 주, 국가 그리고 세계와 같은 각 사회조직의 수준에 부합한다.”(Maharishi, 1976: 2, cited in Orme-Johnson, D.W., et. al. 1988, p. 778)


그러나 집합 의식이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집합 의식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추적해갈 것인가?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 개념을 인도의 베다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힌두교의 신비주의 경전인 우파니사드(Upanishads)에서는, 절대 자아인 브라만에 구현된, 단일의 근원적인 실재를 말하고 있다 (Ramakrishna, P., 2004, p. 147). 서양 전통에서는 저명한 심리학의 창시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02년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에서 최초로 “의식의 장”을 언급했다. 제임스에 의하면, 의식의 장은 “자기 장처럼 우리 주위에 분명히 존재한다. 확실한 값을 매기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주고 관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이 경계선 너머에 저장되어 떠나니면서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 자아를 구성하는 잉여력과 충동과 지식의 총량은 그것을 넘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1960, pp. 145-146).

그밖에도 구스타브 페히너(Gustav Fechner)와 에밀 뒤르켐

(Emilie Durkheim)(1951, pp. 310, 312-312; Lukes, 1973, p. 4) 과 같은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의 창시자들은 거의 1세기 전에 집합 의식 이론을 제안했다. 20세기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접적인 의식(immediate consciousness)이란 철저히 개인적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실증적인 정신이라고 여기는(비록 개인적 무의식을 부록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정신 체계다. 이러한 직접적인 의식과 달리,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라고 하는 이차적인 정신체계가 존재한다. 이 집단 무의식은 집합적이고 보편적이며, 모든 개개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초개인적인 특성을 띤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앞 세대로부터 유전되는 것이며 이미 존재했던 형태, 즉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은 (직접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으로만 의식화되며, 특정 정신적 내용에 명확한 형태를 제공한다(1968, p. 43).”

집단 무의식의 내용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앞 세대로부터 유전된다는 것은 원형의 정보가 물리적 영역(신체)을 넘어선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융은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정신을 초월한 어떤 “정보의 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맥도웰이 지적했듯이(1973), “그러한 이론들은 주류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맞볼 수 있기 전까지는.”(cited in Orme-Johnson, et. al., 1988, p. 778) 하지만 이 “정보의 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것을 머잖아 접하게 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Awakening to the Field of Consciousnes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호세 호베르** 박사(Jose Jover, MSc) |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 jjover@copc.es

역자 | **김현정** | 「지금여기」 번역위원. 2002년 3개월간 유럽의 공동체, 탁났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웨이커 교도의 공동체 우드부룩, 기독교 공동체 브루더호프 등을 다녀왔다. 각 공동체에서 머물면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함을 느꼈다. 역서로는 '나눔의 밥상'이 있다.